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3.3(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코스피는 5천pt 돌파한 지 한달여 만에 6,300선까지 폭등함 (6,244pt, 주간 +436p, +7.5%). 코스닥도 3주째 상승함(1,192pt, 주간 +3.4%). 반도체 낙관론이 이어졌고, 3차 상법개정 통과로 개인 ETF 자금이 빠르게 유입됨. 그러나 주말 美/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WTI 유가는 65달러에서 70달러대로 급등함. 원달러도 1,450원대로 재상승함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(분기 매출 +73%yoy)에도 AI 파괴 공포와 중동 우려로 하락함 (S&P500 -0.4%, 나스닥 -1.0%). 日 증시는 비둘기파 성향의 BOJ 위원이 2명 선임하자, 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함 (닛케이 +3.6%). 中 증시는 양회 기대 속에 상승(상해 +2.0%, 홍콩 +0.8%).

- **[시장전망]** 중동 불안은 누적된 증시 급등 부담과 맞물려 단기 스트레스를 높일 전망. 코스피가 2개월째 20% 넘게 상승한 전례가 없음(1월 +24%, 2월 +22.8%). 그러나 올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(양사 합쳐 300조원) 美 빅테크 기업들과 비견할 정도로 높아짐. 중동지역 긴장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 상승세는 심각하게 위협 받지는 않을 전망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美 2월 고용보고서(3/6일)
  ② 美 2월 ISM 제조업지수(3/3일)
  ③ 中 양회(3/4~5일)
  ④ 美 2월 ISM 서비스업지수(3/5일)
  ⑤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(3/5일)
  ⑥ 美 코스트코, 브로드컴 등 실적 발표

구분		2/27	1W	1M
KOSPI	↑	6,244	6.8%	26.2%
S&P500	↓	6,879	-0.4%	-1.4%
DOW	↓	48,978	-1.3%	-0.1%
닛케이225	↑	58,850	3.6%	10.3%
상해종합	↑	4,163	2.0%	0.6%
원/달러(원)	↓	1,440	-0.5%	-0.4%
엔/달러(엔)	↑	156	0.4%	1.5%
국고채3년(%)	↓	3.041	3.143	3.09
국고채10년(%)	↓	3.446	3.540	3.53
미국채10년(%)	↓	3.94	4.09	4.25
WTI(달러/배럴)	↑	67.0	0.9%	7.4%
한5-yr CDS(bp)	↑	24.9	2.3	3.5

CHART of the week

KOSPI 지수 6,000pt 돌파

1 美/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(2/28일)

장기화 여부 관건, 코스피가 차분해지는 계기

- 전주말(2/28일) 美/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함.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(Epic Fury)로, 이란 지도부 교체가 목표임. 이란도 이스라엘, 사우디 등 美 기지에 보복에 나섰음.
-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격과 올해초 베네수엘라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임. 전세계 원유 수송의 20%(하루 4백만 배럴)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존재(유가 10~20달러 상승 가능성).
- 사태는 이전 분쟁에 비해 심각함. 그러나 美 중간선거와 중동국가들의 경제 전환 노력, 이미 크게 타격을 받은 이란 군사력을 감안할 때 러우전쟁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음.
- 그동안 쉼없이 급등했던 코스피 상승세가 차분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.

2 韓 BOK 금통위 6연속 기준금리 동결(2/26일)

성장률 2.0%로 상향, 상반기 동결 유지 예상

- 한은은 2월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2.5%로 동결(만장일치). 25년 7월부터 6회 연속 동결을 결정함.
- 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+1.8%에서 +2.0%로 +0.2%p 상향. 반면 27년 전망치는 +1.9%에서 +1.8%로 하향함.
- 한은 총재는 환율 하락과 부동산 정책 강화 등으로 현 금리 수준이 기준금리 대비 과도하다고 발언함.
- 새롭게 공개된 K-점도표(6개월 포워드 가이던스)는 동결 16, 인상 1, 인하 4로 상당기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함.

3 美 엔비디아 4Q 실적 발표(2/25일)

높은 성장 지속, 그러나 출혈 경쟁 우려도 잔존

- 엔비디아의 2025년 4Q 매출은 681억 달러(+73.2%yoy), 주당순이익은 1.62달러로, 예상을 상회함. 다음 분기 예상 매출액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780억 달러를 제시함.
- 젠슨 황은 차세대 블랙웰과 베라 루빈으로의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, 中 매출 없이도 압도적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함.
- 그러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수록 美 증시의 33%를 차지하는 빅테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약해지고,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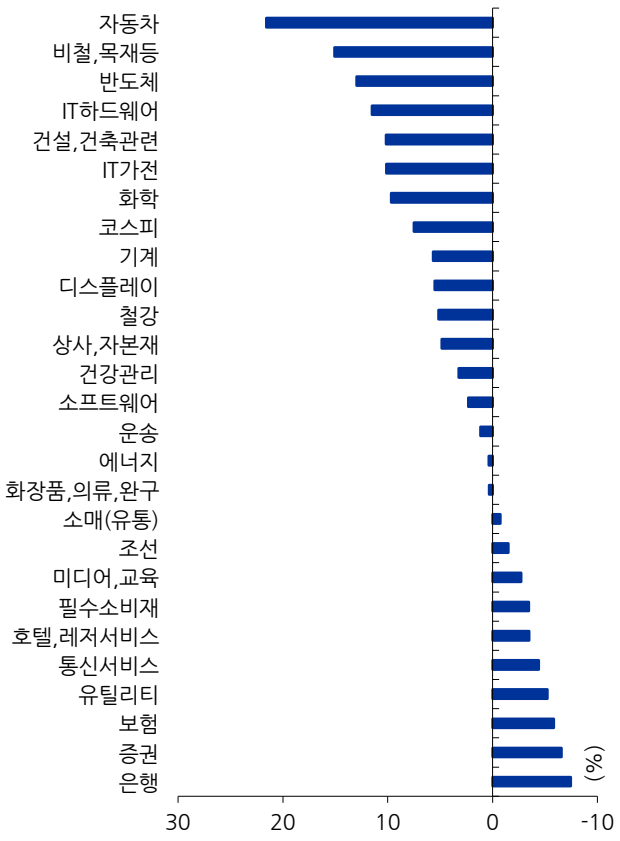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2/23~27일)

완화적 금통위에 강세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05%(-10.3bp), 10년물 금리 3.45%(-12.7bp) 마감.
- 주식 강세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금통위 결과에 투자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됨.
- 금통위,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환율 여건 개선 인정 및 현 금리 레벨이 기준금리 대비 과도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이 확인되며 전구간 금리가 하락함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2/27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3/3 ~ 3/6)

美 2월 고용(3/6일) → 실업률 +4.4% 소폭 반등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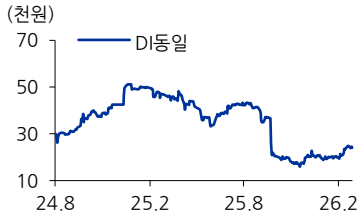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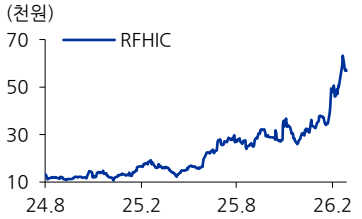
- 美 1월 비농업취업자는 +13.0만명 증가,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임
- 2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취업자는 +6.0만 명 증가하며 완만한 고용 증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- AI 투자지출 증가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로 인해 1월 건설업(+3.3만)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짐
-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.2만 건으로 1월 말부터 소폭 증가함. 실업률은 전월(4.3%) 대비 소폭 반등한 4.4%로 전망
-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와 낮은 실업률 수준이 유지되며 고용 시장의 완만한 냉각 신호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

中 양회(3/4~5일) → 15.5 계획에 따른 신성장 산업 관심

-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中 양회는 26년 국정운영 계획과 '제15차 5개년 계획'이 공개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- 공급 과잉 축소로 인해 실질 성장률은 5%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. 다만 명목 성장률 반등에 초점을 둘 것으로 판단
- 내수 회복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 정책 기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될 지가 관건임. 다만 시장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
-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광범위한 정책보다 정밀한 부양책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
- 15.5 계획 중점 대상이자 산업화 기대감이 커진 AI와 로봇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3/2 (월)		▪ 韓 휴장 (삼일절 대체)
3/3 (화)	▪ 美 2월 ISM 제조업지수 (C: 51.8pt, P: 52.6pt) ▪ 유 2월 소비자물가지수 (P: +1.7%yoy) ▪ 유 2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(P: +2.2%yoy)	▪ [실적발표] 美 크라우드 스트라이크, 오토존, 타겟, 베스트 바이
3/4 (수)	▪ 유 1월 생산자물가지수 (P: -2.1%yoy) ▪ 中 2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(C: 49.1pt, P: 49.3pt) ▪ 中 2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(C: 49.6pt, P: 49.4pt)	▪ 中 양회(~5일) ▪ [실적발표] 美 브로드컴, 비바 시스템즈, 옥타, 리게티 컴퓨팅
3/5 (목)	▪ 美 2월 ISM 서비스업지수 (C: 53.9pt, P: 53.8pt)	▪ 美 연준 베이지북 공개 ▪ [실적발표] 美 코스트코, 시에나, 크로거, 마벨, 쿠퍼 컴퍼니스
3/6 (금)	▪ 美 2월 비농업고용 (C: +6.0만 명, P: +13.0만 명) ▪ 美 2월 실업률 (C: 4.4% P: 4.3%) ▪ 유 4분기 GDP (P: +1.3%yoy) ▪ 韓 2월 소비자물가지수 (C: +2.2%yoy, P: +2.0%yoy)	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그린산업/ESG	DI동일 (001530)	24,150 (2월 23일)	-0.4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651.7 / 608.9 / 688.8 영업이익 7.8 / (1.0) / 12.3 순이익 2.5 / (9.7) / 11.7 PER (배) 766.3 / - / 43.0	▪ BESS향 LFP용 코팅 알루미늄박 및 환경플랜트 자회사 매출 증가 예상 ▪ 차세대 배터리인 소디움 배터리는 구리박 대신 알루미늄박 채택할 것에 따른 수혜 기대 ▪ LFP, 소디움, 전고체 배터리용 알루미늄박에 필수적인 카본 코팅을 내재화하기 위해 1,100억원 투자
통신장비	RFHIC (218410)	59,000 (2월 23일)	-3.7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14.9 / 174.9 / 246.0 영업이익 1.5 / 28.5 / 46.0 순이익 19.7 / 28.7 / 42.2 PER (배) 13.5 / 60.6 / 39.6	▪ 과거 통신장비 중심에서 사업 구조 다변화에 성공하며 방산 매출 성장 본격화와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 진입 ▪ 대형 통신 고객사 확보 가시성 확대로 유의미한 외형 성장과 높은 업사이드 확보 기대 ▪ 위성 SSPA 전환 추세에 맞춰 우주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방산 성장 공식의 재현 전망
IT장비	선익시스템 (171090)	119,300 (2월 23일)	+9.8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12.9 / 459.7 / 511.6 영업이익 7.9 / 85.2 / 108.5 순이익 (28.1) / 90.2 / 96.4 PER (배) - / 14.2 / 14.1	▪ 8세대 OLED 증착기 프리미엄 지속 - 기존 고객(BOE)향 수주 및 타 FMM 증착방식 패널사 향 수주 기대 ▪ OELDoS 증착기 수주레벨 연 1~2대에서 연 6~7대로 상승 - 메타레이반2 쇼티지로 AR 글라스 패널사 수요 흡수 위해 OLEDoS 방식 채택 후 판가 인하 전략 예상 ▪ 페로브스카이트 모멘텀 지속 - 수주받은 118억원 실증장비 연내 실증 완료 후 내년 양산규모 수주 기대
건설/부동산	삼성E&A (028040)	30,800 (2월 2일)	+18.2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9,966.6 / 8,893.3 / 10,338.2 영업이익 971.6 / 722.2 / 857.3 순이익 638.7 / 617.6 / 702.2 PER (배) 4.3 / 11.7 / 10.2	▪ 사업부 재편(화공/비화공 > 화공/첨단산업/New Energy) ▪ New Energy 수주 파이프라인 집중(전체의 66%) ▪ 유가에 민감한 화공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수주 및 매출 확대 기대 ▪ 진행사업장 정산 이익 지속되어 가이던스 초과 달성 예상
반도체 장비	한미반도체 (042700)	177,500 (1월 19일)	+82.3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558.9 / 647.0 / 813.5 영업이익 255.4 / 297.3 / 404.3 순이익 152.6 / 283.6 / 396.5 PER (배) 52.5 / 109.3 / 77.8	▪ 기존 TC 본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와 국내 주요 칩 제조사향 신규 수주 기대 ▪ 주요 고객사들이 HBM4E까지 TC 본딩을 적용함에 따른 TC 본더 장비 강세 지속 예상 ▪ 빅 다이 본더, MSVP, EMI 실드 장비 등의 ASP 상승으로 인해 TC 본더 이외 매출까지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